국악·양악 부문

김민영, 조재경과 은현주 듀엣, 벼리국악단, 장수영, 소라영(사진 왼쪽부터)

'우리소리 우리가락' 내년을 빛낼 예술가들

▶ 우진문화재단서 선정

국악 - 김민영 · 조재경과 은현주 듀엣 · 벼리국악단
양악 - 소프라노 장수영 · 피아니스트 소라영
무용 - 박주희 · 채서윤 · 하지혜 · 문지수 등 6명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선희)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공모하는 '2017우리소리 우리가락' 예술가들을 선정했다.

국악부문에서는 소리꾼 김민영(43)의 열사가, 조재경(42)과 은현주(43)의 듀오콘서트, 국악실내악단 벼리국악단(대표 김은영)의 벼리놀음이 선정됐다. 이들은 판소리의 다양한 공연형식을 실험화 하고, 창작곡을 초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악부문에선 소프라노 장수영(33)과 피아니스트 소라영(38)이 뽑혔다. 참신한 기획의도와 연주자로서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의기가 높이 샀다.

국악부문에서는 소리꾼 김민영(43)의 열사가, 조재경(42)과 은현주(43)의 듀오콘서트, 국악실내악단 벼리국악단(대표 김은영)의 벼리놀음이 선정됐다. 이들은 판소리의 다양한 공연형식을 실험화 하고, 창작곡을 초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악부문에선 소프라노 장수영(33)과 피아니스트 소라영(38)이 뽑혔다. 참신한 기획의도와 연주자로서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의기가 높이 샀다.

무용부문에서는 신인춤판에 박주희(27), 채서윤(28), 하지혜(26) 젊은춤판에는 문지수(30), 한유선(44), 한성(34)이 선정됐다. 이들 무용가들은 춤의 언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연들을 선보일 역량과 자질이 충분해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들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제작을 비롯해 발표·홍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국악 분야의 심사는 왕기석 명창이, 양악은 지성호 작곡가, 무용은 최재희 안무가가 평가했다.

/정해은 기자

무용 부문

박주희, 채서윤, 하지혜, 문지수, 한유선, 한성(사진 왼쪽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국영화 경쟁부문 출품작 공모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가 2017년 1월 31일까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경쟁부문 출품작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작품 길이 40분 이상의 한국 경쟁과 40분 미만의 한국단편경쟁으로, 두 부문 모두 2016년 11월 1일 이전에 개최된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작품은 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실험영화 등 장르와 형식에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온라인 출품 신청을 완료한 뒤, 전주국제영화제 서울사무소 프로그램팀 한국영화 담당자(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3길 56 (양재동 3-4) 2층) 앞으로 DVD 2매를 제출하면 된다.

내부심의 및 예심 등의 절차를 거쳐 가려진 본선작은 2017년 3월 발표되며, 2017년 4월 27일~5월 6일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팀(02-2285-0562).

/정해은 기자

군산 - 일본 다카마쓰 아동미술 교류전 성료

군산시가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한·일교류협회와 함께 양국 어린이들의 미술작품을 소재로 아동미술 교류전을 열었다.

한·일 양국을 순회하며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일본 다카마쓰시 국제교류센터전에 이어, 내년 2월에는 군산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국내 전시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기간 중 개최된 제8회 철새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33점과 일본 다카마쓰시 5~10세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한·일 양국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담긴 미술작품 합동전시를 통해 미래 한·일 문화교류의 기반을 다지고, 어린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소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 도시간 체육은 물론 문화·예술교류도 활발히 전개할 것"이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박 대통령이 '꼭두각시'로 전락한 이유?

강준만 전북대 교수, '박근혜의 권력중독' 출간

지난 10여년간 정치판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 순간에 '꼭두각시'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작 '김대중 죽이기'를 사회과학서적으로서 드물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리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최근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의 본질에 대해 분석하는 신간을 내놨다.

그가 쓴 '박근혜의 권력 중독'(인물과 사상사)은 우선 박 대통령을 '희귀한 유형의 의전 대통령'으로 정의한다. 본질은 '꼭두각시'였던 박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의 여왕'으로 존재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의전'에 의존했던 박 대통령의 속성과 이에 의미를 부여했던 유권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주술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

"박근혜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니와 권력 행사를 즐겼다. 우리는 여기서 박근혜의 모든 권력 행사가 최순실의 지시나 조언에 따른 게 아니냐는 식의 과장을 범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동물적 본능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은 박근혜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의료 스캔들' 역시 박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의전 자본'의 관점에서 보아야 의문이 풀린다고 제시한다. "그냥 단순한 '주사 중독'이 아니라 대통령답게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의전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 몸부림이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이른바 '올림머리' 사건도 병적인 의전 자본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권력 중독에 관한 한 박근혜는 최순실과 한 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의 권력은 박근혜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고, 박근혜는 좀더 뚜렷하게 관찰 가능한 권력 행사의 기쁨을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데에서 만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185~186쪽)

**216쪽, 인물과사상사, 1만3000원.

/뉴시스

▶▶ 공연 & 전시 ◀◀

양영의 서예전, 내일부터 6일간 도립미술관서

"자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이율배반적인 다양한 어우러짐과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동경의 꿈, 유토피아라는 이상향도 있다는 것을 서예·문인화·전각·캘리그라피로 표출하려 했다."

몽화 양영의 서예전이 오는 21~26일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서울관에서 '자연을 쓰고, 그리고, 새기다' 주제로 열린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인들이 자연을 노래한 주옥같은 시를 다양한 서체로 표현하여 서예가 주는 가독성을 비롯하여 회화적인 측면까지도 담아내려 했다.

또한 문자의 조형성을 기반으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서예의 형식을 이루는 재료들을 기반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확장시켜 일반적인 서예전시와 차별화 했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예문자예술을 전공하고 동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전, 한·일 캘리그라피 교류,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로 인한 현판 복원 탁본 작업(대전대덕연구단지 문화재보존과)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한국캘리그라피 디자인협회 전문위원, 강압서예대전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등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2월 20일〉

▷쥐띠
48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60년생: 병이 있는 사람은 몸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
84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쉽게 해결 될 것이다.

▷소띠
49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어왔으니 계약이나 투자를 하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운은 지나가는 것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이 생길 듯.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운.
74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베풀면 덕이 돌아오는 운이다.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지만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니 외부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마라.
75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6년생: 오늘의 적이 곧 내일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88년생: 윗사람의 모진 말속에 도움 되는 답이 있다.

▷뱀띠
53년생: 외부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지름길이니 주의하라.
65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
77년생: 외출을 하면 손재수가 따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이다.
89년생: 복잡한 일을 하거나 두뇌를 많이 이용하는 일을 하기에 좋은 날.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화합하나 후반에는 어긋나니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불리하다.
6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78년생: 식록이 따르는 운이나 과식은 금물이다.
90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다툼이 따르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시비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67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득이 따르는 운이다.
79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학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91년생: 이성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8년생: 문서를 잡고자 하거나 계약할 할 때도 좋은 운.
80년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마라.
92년생: 현재 상황을 현상에 비해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닭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69년생: 소홀했던 사람을 찾아가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1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이 생기거나 화가 생긴다.
93년생: 금전운이 올라가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운.

▷개띠
4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발생하니 모임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인덕은 바라지 말아야 하는 운.
70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원행도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상황이 변하여 놀라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

▷돼지띠
47년생: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으로,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59년생: 계약하거나 좋은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1년생: 뜻하지 않게 이성으로 인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83년생: 작은 욕심은 이루어지나 큰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